

중국 화학시장 사스 피해 별로!

상반기 GDP 성장률 0.2% 감소 그쳐 ... CA 시장은 오히려 성장

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가 중국경제에 미친 영향은 산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관광산업, 외식산업, 여가산업, 항공산업 및 소매업 부문의 피해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SARS가 발생하자 세계 주요 투자금융회사들은 중국의 2003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했으나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GDP 성장률이 0.2% 감소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SARS 확산추세가 진정되면서 중국경제가 활기를 되찾기 시작했으며 SARS가 중국 석유화학산업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SARS가 확산될 무렵,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 항공 관련 석유정제산업과 소독제(Disinfectant) 관련 CA(Chlor-Alkali)산업이 중국의 주된 관심사로 떠올랐다.

SARS 확산으로 사람들이 외출을 기피하게 되면서 버스, 택시 및 항공기 등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석유 수요가 급감했다. 항공산업의 타격이 컸는데, 특히 국제선 항공편 수요가 감소해 마진이 크게 줄어들었고 항공 관련 석유제품의 수요도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가솔린 및 디젤은 피해가 적었던 반면, 등유 판매량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SINOPEC의 등유 매출액은 석유제품 매출액의 2.7%에 불과해 가솔린 17.9%와 디젤 31.5%에 비해 낮은 상태이다.

석유정제기업들이 받은 피해도 그리 크지 않아 SINOPEC의 석유제품 판매량은 2002년 1/4분기 1781만톤에서 2/4분기에는 1760만톤으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2003년 5월10일 National Development & Reform Commission은 중국 내수시장의 석유기준가격을 하향조정해 가솔린 마진은 0.8% 감소한 톤당 290元, 디젤은 7.6% 감소한 250元, 항공기용 등유는 8.3% 감소한 250元을 나타냈다.

중국은 석유가격을 최근 세계시장에서의 석유제품 가격변동과 중국 내수시장의 석유제품 수요·공급 상황에 맞춰 조정했다.

국제유가 폭락에도 불구하고 SINOPEC, Yangzi Petrochemical, Shanghai Petrochemical, Qilu Petrochemical, Shijiazhuang Refinery 및 Jinzhou Petrochemical 등 석유정제기업들 총수익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으며 앞으로의 경제활동에도 SARS의 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ARS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독제인 CA(Chlor-Alkali)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SARS 여파가 다소 진정되기는 했지만 당분간 가정 및 공공기관에서는 계속 살균작업을 시행할 것으로 보임 SARS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소독제인 Acetic Peroxide와 Chlorine을 함유한 소독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Acetic Peroxide는 생산 프로세스가 간단하고 투자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소규모 화학기업이나 비상장기업들이 주로 생산하고 있다.

Chlorine를 함유한 소독제로는 대표적으로 표백가루의 일종인 Hypochlorite가 있는데, CA 생산기업인 Beijing No.2 Chemical Plant와 Jinzhou Petrochemical의 CA Plant가 전체 생산량의 각각 0.24%, 0.18%를 생산하고 있다.

다만, CA 생산기업들의 Hypochlorite 매출비중이 낮기 때문에 SARS 때문에 얻은 수익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anning Chemical과 Shandong Shanda Wit Science & Technology는 각각 Tri-Chlorine Isocyanuric Acid 생산량의 7.9%, Chlorine Dioxide의 17.6%를 차지하고 있다.

Nanning Chemicl은 2002년말 Tri-Chlorine Isocyanuric Acid 생산능력을 1만5000톤으로 5000톤 증설했으나 최근 SARS의 확산으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월 생산량을 1200톤으로 200톤 늘렸다.

SARS로 인해 아시아 석유화학산업회의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됐고 몇몇 다국적기업과의 계약도 연기된 상태이다.

<Chemical Journal 2003/07/21>